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庚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경명지국 2200-511
 대표부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부 2200-521
 정치부 2200-616 (팩스 227-9500)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부 2200-536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4267) 문화정보부 2200-541
 사회3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부 2200-551
 문화생활부 2200-626 (팩스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식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일)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1kg 살 찌웠는데 푸근해 보이나요”

오늘부터 방영 '솔약국집 아들들' 한상진

“원래는 20kg을 찌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11kg 밖에 못 찌웠어요.”

‘하얀거탑’에서는 차가운 레지던트, ‘이산’에서는 머리 회전 빠른 흥국영으로 등장했던 탤런트 한상진이 이번에는 살을 두둑하게 찌운 채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그는 11일 시작하는 KBS 2TV ‘솔약국집 아들들’에서 못생겨서 잠가려 하지 못하는 셋째 아들 송선풍 역을 맡았다. 7개 국어를 하는 똑똑한 기사이지만 외모는 전혀 볼 것이 없어 여자들의 외면을 받는 캐릭터다.

최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솔약국집 아들들’의 제작발표회에서 한상진은 “열심히 살을 찌웠다. 그런데 목표치에는 아쉽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가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썩시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작가님의 감언이설에 속아 살을 찌웠다”면서 “그런데 살을 찌워도 전혀 썩시하게 보이지 않아 어른들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그가 맡은 송선풍은 특 튀어나온 배에 구석 안경을 쓰고 다니는 인물이다. ‘걸어다니는 인턴’이라 불릴 정도로 박식하지만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이 남자에게 관심 있는 여자는 없다.

한상진은 “난 꽃미남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기본적으로 캐릭터에 충실해야한다. 그래서 살을 열심히

찌웠다. 그래야 작품에 동화가 빨리 될 것 같았다”면서 “선풍은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청년이기 때문에 외모에서는 확실하게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살은 빨리 찌지 않았다. “처음에는 빨리 안 찌서 고생했어요. 원래 잘 찌는 체질인데 7~8kg 찌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안 찌더라구요. 부어 보이려고 촬영 전날 밤 라면을 먹고 자기도 했지만 잘 안되더라구요. 게다가 찌우는 것도 효과적으로 찌워야했어요. 배가 처지게 보여야하는데 그게 잘 안됐서 고민했어요. (웃음)”

그는 “살을 많이 뺀 적도 있어서 살을 빼고 찌우는 것에 별 부담이 없다”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살을 찌우려면 자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하고 눈 뜨자마자 꼭 먹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산’에서 흥국영 역을 맡아 촌철살인의 대사를 많이 소화해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도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많다.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선풍은 기자이기도 하지만 직업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될 겁니다. 닭이나 곰, 강아지 등 버려진 동물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에요.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라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연합뉴스

“캐릭터 맞추려 체중 늘려 매력적인 역할 기대 많아”

매력적인 역할 기대 많아



〈'솔약국집 아들들'의 주역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

“예능 프로 벼락지만 프리랜서 후회 안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아직 예능프로그램을 따라가며 벼락지만 프리랜서 선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방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성주는 8일 오후 서울 상암동DMC DMS빌딩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N 리얼토크쇼 ‘화성인 바이러스’ 촬영장에서 “프리랜서로 나오니까 나를 이상한 화성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내 선택이 나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07년 초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MBC를 떠난



김성주는 마음고생 끝에 지난해 가을 FM4U ‘굿모닝 FM’의 DJ로 복귀했으며 오락프로그램 ‘명랑히어로’에도 고정출연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방송사들이 내부 인력을 증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 번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잘린 적이 없는데 ‘명랑히어로’ 하차 통보에는 서러웠지만 많이 의연해졌다”며 “지금은 직장인이었던 예전보다 프로그램에 더 애착을 두고 있어 남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랑히어로’에 출연할 때는 너무 잘라하다가 촬영 전날에는 거의 잠도 못 잤다”고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김성주는 “예능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다”며 “프리랜서로 나와 보니 예능 쪽에서 많이 찾았다”며 “아직 예능을 오래하신 분들을 따라가기에 벼락지만 과장하지 않고 아나운서 출신답게 정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 캐릭터가 잡힐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주)국민법률경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매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0621351-8240 010-7203-1100 공, 경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행숙

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서울	송파구	신일동 신일리	285/308	125 7억
	강남구	신원동 신원리	258/248	115 7억
	강동구	고덕동 고덕리	585/58	62.9 3억
경기	안양시	신원동 신원리	208/198	82 3억
	부천시	미사동 미사리	98/78	86 1억
	인천시	미추동 미추리	158/108	106 3억
광주	동구	동구동 동구리	208/108	106 3억
	서구	서구동 서구리	258/178	102 3억
	남구	남구동 남구리	138/78	106 3억

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충청	대전시	대전동 대전리	194 2억	194 2억
	충주시	충주동 충주리	178 1억	178 1억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리	122 9천	122 9천
전남	광주	광주동 광주리	112 1억	112 1억
	전주시	전주동 전주리	112 9천	112 9천
	목포시	목포동 목포리	112 9천	112 9천

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전북	전주시	전주동 전주리	112 9천	112 9천
	익산시	익산동 익산리	112 9천	112 9천
	군산시	군산동 군산리	112 9천	112 9천
충남	대전시	대전동 대전리	194 2억	194 2억
	충주시	충주동 충주리	178 1억	178 1억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리	122 9천	122 9천

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경남	부산시	부산동 부산리	419/285	419 2억
	대구시	대구동 대구리	373/147	373 1억
	인천시	인천동 인천리	550/111	550 5천
경북	대구시	대구동 대구리	373/147	373 1억
	부산시	부산동 부산리	419/285	419 2억
	인천시	인천동 인천리	550/111	550 5천

구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충북	충주시	충주동 충주리	178 1억	178 1억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리	122 9천	122 9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리	112 9천	112 9천
경북	대구시	대구동 대구리	373/147	373 1억
	부산시	부산동 부산리	419/285	419 2억
	인천시	인천동 인천리	550/111	550 5천

• 상거래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